대선사 '선문답' 법회로 인식 대전환을…

삼보사 · 육지장사 9월 22일부터 대법회 입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문관 공안 갖고 법석 마련
제방선원 유명 선사 법사로
질의응답 등 문답기회 제공


보광 스님 법산 스님 지원 스님 의정 스님 영진 스님 혜국 스님

〈선문답〉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서 출현한 선수행의 결과물이다. 이런 선문답에 대한 대담론이 불교계에서 펼쳐진다.

서울 삼보사와 양주 육지장사는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2019선문답 특별대법회를 개최한다.

대법회는 먼저 9월 22일 삼보사에서 해인사 보광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1칙인 조주구자를 주제로 열린다.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은 바깥으로 드러난 적이 없는 해인사의 숨은 수행자로만 알려져 왔다. 17세에 동진출가한 스님은 해인강원 교수사와 해인사승가대학 대학장을 9년간 역임하며 대강백으로 20여년 동안 학승들을 가르쳤다. 이후 해인사 선방과 칠불사 선방 등 20안거를 성만하고 2000년 해인사 주지를 마지막으로 은거수행 중이었다.

두 번째 법회는 9월 29일 삼보사에서 통도사 법산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2칙인 백장야호를 주제로 열린다.

현재 동국대 이사장으로 있는 통도사 법산 스님은 15세에 남해 화방사서 출가해 동국대 인도철학과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후 일찌감치 대만에 유학해 불교학을 연구했다. 1980년 대만 중국문화대 철학연구소서 공부한 후 1986년 동국대 선학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25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법산 스님은 2006년 학자의 틀을 벗어 던지고 수좌의 길을 걸었다. 벽송사서 첫 안거 후 매년 하안거때면 늦깍이 수좌로 안거에 들었다. 스님의 법회는 수행과 학문의 성과가 함께 어우러지는 법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회는 10월 6일 명사초청 특별대법회 형식으로 무문관 제3칙 구지수지를 주제로 열리며 네 번째 법회는 10월 13일 삼보사서 前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법사로 무문관 제4칙 호자무수를 주제로 열린다.

지원 스님은 40년 가까이 포교현장에서 전법 활동에 매진해 온 스님이다. 지원 스님은 1984년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을 시작으로 어머니합창단 등 불교계 문화포교를 이끌어 왔다. 1997년 양주 도리산 기슭에 육지장사를 창건하며 도심의 지친 현대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스님은 현재도 대중포교와 생활 포교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다섯 번째 법회는 10월 20일 삼보사서 상원사 의정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5칙인 향엄상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의정 스님은 상원사 용문선원장을 맡아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인천 용화선원에 방부를 들인 젊은 시절 2~3년씩 밖에 나오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다. 이후 선원청규 간행 등 선방의 굵직한 일을 도맡아 했다. 간화선의 생생한 경지를 스님에게 듣고 답할 수 있는 기회다.

여섯 번째 법회는 10월 27일 삼보사에서 백담사 영진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6칙인 세존염화를 주제로 마련된다.

이날 법사로 나서는 영진 스님은 백담사 유나로 41년간 화두 하나를 들고 정진의 길을 걸어 왔다. 무문관 폐문 정진도 수년간 진행한 스님에게서 무문관 선수행의 요체를 접할 수 있다.

마지막 법회는 11월 3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석종사 혜국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7칙인 조주세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혜국 스님은 한국불교 대표적인 선승으로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젊은 시절 해인사서 10만배 정진 뒤 오른손 세 손가락을 연비하며 견성성불의 뜻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성철 스님과 경봉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과 법거량을 한 스님의 높은 경지를 곁에서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다.

삼보사 측은 "수영이나 골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의 레슨을 받으면 실력이 향상되듯, 대선지식의 지도아래 실참(實參)하면 누구나 생각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다"며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사 (02)352-6406, 육지장사 (031)871-0101

원행 스님, 난치병어린이 쾌유 기원

종로구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 방문, 치료비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8월 30일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 콩팥 내 희귀질환인 기텔만증후군을 앓고 있는 손민지(9) 양에게 치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손민지 양과 어머니 마리 씨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건강을 빨리 되찾아 훌륭한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그러자 손 양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남을 돕는 어른이 되겠다"고 인사하며 원행 스님에게 감사 편지와 직접 그린 부처님 그림을 선물했다.

한편 이번 원행 스님의 방문은 지난 4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19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연된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재단은 총 1억 68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시설 추천을 받아 국내 18명, 라오스 7명의 환아에게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도 추석맞이 단장 추석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9월 4일 대웅전 삼존불을 비롯한 경내 전각에 대한 소제를 진행했다. 이날 소제법회에는 스님들을 비롯해 소임본부, 포교본부, 사회본부, 교육본부, 수행본부와 6개 지역본부의 신도회 대웅전관리팀, 포교사팀, 붓다맘봉사팀, 선림원 수행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불교문화재 우리 손으로 지킨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

서울 조계사가 불자 청년들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조계사는 9월 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문화재 보호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과 국장스님들, 조계사 불교학교 청소년 법회 30여 명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조계사는 이번 발대식에 앞서 8월 9일 서울 종로구청과 문화재보호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조계사는 자체 문화재 보호단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인증제도 확립과 우리 문화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문화재 보존 정신을 일깨우는 데 조계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부촉장 전달식도 있었다.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문화재 지킴이 팀장은 관음정심명희 팀장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조계사 불교학교 청소년 법회 법우들도 참석했다. 불교문화재 지킴이로 부촉된 청소년 법회 법우들을 대표해서 김종연 학생이 부촉장을 받았다.

이어서 문화재 보호 활동에 임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 선서가 조계사 불교학교 청소년 법회 김종연 학생의 선창으로 진행됐다.

선서를 마친 80여 명의 단원들은 집게와 봉지를 들고 조계사 일주문을 지나 불교대학, 수송공원, 우정총국에 이르는 거리의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주으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창원(18세 고3)학생은 "유아법회 때부터 조계사에 다녔는데 조계사 주변과 우리 문화재를 청소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봉사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울 강남서 피어나는 불교 다향(茶香)

봉은사 1225주년 개산대재 맞아 10월 3일 다향대전 개최

서울 강남 봉은사의 개산대재를 맞아 전국 다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3일 오전 11시 1225주년 개산대재를 기해 종루와 미륵광장에서 '봉은사 다향(茶香) 대전(전국 찻자리 경연대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향대전은 전국 사찰의 다도반 회원들과 불교와 유관한 차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다. 각 팀별로 찻자리를 준비해 여러 가지 준비한 차를 내방한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대접한다.

이와 함께 녹차와 황차 등 한국차, 보이차, 청차, 백차, 흑차 등 중국차, 말차와 홍차 등 외국차, 꽃차 연차와 같은 대용차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대상 1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부상이, 최우수상 1팀은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1팀은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까지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통보 된다.

봉은사 측은 "우리 차의 대중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2)3218-4835 노덕현 기자